

## [신약 속 미로 찾기 34] 밀는 자가 심판대에 서다?

한상원 목사 / 2002 / 페이지 수: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 이라(고후 5:9-10)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선 이런 말씀을 하고 저기에선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처음 성경을 대하는 분에게 이런 점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반드시 초신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위에 인용한 두 구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질문한다.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우리(We)라는 단어를 사용함-모든 크리스천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두 단어 모두 '심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의 심판은 원래 '정죄(condemnation)라는 뜻이다. 즉 '죄인'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사망과 죽음,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후자에 사용된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무슨 뜻인가? 심판대란 원어로 '베마'(bema)이고 문자적으로 '계단'의 뜻으로 성경 말씀에서 높은 좌석을 가리킨다. 당시 로마의 법관이 높은 좌석에서 재판해 '재판석'(judgement seat of Christ)이란 말로 쓰였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이런 재판석을 볼 수 있다.

언젠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재판석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의 표정과 마음은 어떨까? 그것은 당신이 평소에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필자는 이 재판석이 정죄와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rewards)을 주시려는 은혜의 것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 주님과 친밀했고 복음과 은혜 아래 살았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큰 체육대회 후 시상식에 참여하는 어린아이들처럼..

\* 출처 : 큐티와일대일